



순창군이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의 보금자리가 될 행복주택 건립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순창군, 행복주택 세운다

사회 초년생들·노인·신혼부부 대상... 주거지 마련 등 기대

순창군이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의 보금자리가 될 행복주택 건립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거환경이 편한 지역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군은 최근 국가예산 6억 6천만원을 확보해 순창지역에 첫 행복주택 건립의 계기를 만들었다.

군은 순창읍 순화리 496번지 주변 옛 노인복지회관 건물터에 내년부터 2018년까지 군비를 포함해 총 22억을 투자해 행복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30

㎡ 20호, 45㎡ 10호 총 30호 규모의 5층 건물 1동이다.

군은 행복주택이 완공될 경우 순창 지역에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과 신혼부부의 주거지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순창지역에는 최근까지 사회초년생들이 주거지를 구하지 못해 전 주나 광주 등 인근도시에서 출·퇴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기존 원룸에 비해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사회초년생은 물론 노인과 취약계층에게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

더불어 신혼부부 인구 유입으로 인구증가도 기대된다.

황숙주 군수는 "사회 초년생들과 취약계층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내년부터 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해 2018년 중반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안한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2018년 중반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자세한 문서는 민원과 건축계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2017년도 임도사업, 숲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등 내실 있는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조기착수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남원시 산림사업 조기착수 준비

임도 신설·유지·관리 등 사전설계 실시 중

남원시는 2017년도 임도사업, 숲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특화립 조성 등 내실 있는 산림사업 추진을 위한 조기착수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임도사업은 산림 기반시설인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아열 성리 등 3개소 3km구간의 신규임도를 조성하였으며, 기존 임도 60km구간에 대해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내년 임도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임도사업 대상지 보절면 진기리 등 2개소 1.3km구간에 대한 사전설계를 실시 중에 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

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올해 조림지 가꾸기 550ha, 어린나무 가꾸기 227ha, 큰나무가꾸기 345ha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였다. 내년 숲가꾸기 사업 계획면적 1,250ha 중 산동면 대상리, 운봉읍 화수리 등 170ha에 대한 사전설계 실시 중에 있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올해 경제림 등 6개 사업 133ha조림 실시하였으며, 내년 조림사업 대상지인 남원시 관내 170ha 중 135ha에 대한 사전설계 및 사업 대상지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지리산둘레길 특화립 조성사업은 남

원을 대표하는 지리산둘레길 구간에 연차적으로 뱃나무, 철쭉 등을 식재하여 경관 개선 및 이용객들의 쾌적한 들레길 환경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이다. 올해 주천, 운봉 구간 50ha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내년 사업 대상지 운봉~인월 구간 25ha에 대한 사전설계 실시 중에 있다.

한편, 올 겨울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세계 희귀절지동물 특별전이 12월 24일부터 1월 22일까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절지동물들이 한곳에 모인 매우 이색적인 행사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방문을 대비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둔덕기마을 학교 수료식

임실군은 오수면 둔덕권역 방문자센터에서 2016년 제3기 둔덕기마을 학교 수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근 열린 수료식은 이현재 학교장(오수면 동촌마을 이장)을 비롯해 주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화사일정을 마친 22명의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수료를 축하했다.

특히, 이날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농림부 장관상을 받은 중금마을 할머니 유랑극단의 '내 나이가 어때서' 축하공연을 비롯해 임실군 마을공동체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둔덕기마을 할머니 다듬이 공연단의 삼금 수어식도 함께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둔덕기마을 학교는 지난 2014년 개강한 마을공동체 주민교육 프로그램으로 합창, 다듬이, 요리교실 등 마을 자체 프로그램과 오수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및 노인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정읍시, 민방위 총결산 보고회

성과분석·발전방안 제시·유공자·참여자 격려 등

정읍시는 20일 '희망정음 2017년 을 보다' 2016년 민방위 총결산 보고회 및 민방위 유공자 시상식을 갖고 2016년 한 해 동안의 민방위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제시, 2017년 계획보고와 함께 민방위 유공자 및 참여자를 격려했다.

이날 지역민방위대장과 지원민방위대원, 수상자 및 수상자가족, 읍·면·동장, 업무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 '2016년은 민방위교육 및 시민강화에 역사 강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개설하고 읍·면·동, 학교, 경로당을 대상으로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청소년, 노인, 주민 등 9,516명이 수강했다'고 밝혔다.

또, '일상에서 발생하는 심 정지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의 확산을 위해 응급처치 전도사교육과 전방 인보현장 방문 견학을 실시하는 등 1975년 9월

22일 민방위 창설 이래 전시, 사변 위주의 민방위 대비 태세를 상시 생활민방위 운용 체제로 전환하는 전기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민·관·군·경이 합동훈련으로 실시한 읍지연습과 화랑훈련, 민방공 훈련 등 지역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은 사전 예고 없이 실전과 같이 치러져 전시 대응능력을 강화하였고, 전시 군수물자의 원활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민간물자조달 약정을 체결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빈틈 없는 통합방위의 실천을 성과로 꼽았다.

김생기 시장은 격려사에서 '올 한 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상시 생활민방위 운용 체제로 전환한 첫 해를 맞게 됐으며,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축산농가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AIB를 민방위 정신으로 슬기롭게 막아내자'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지역축제 평가용역 보고회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보다 특색 있고 관광객 등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축제 평가용역 보고회'를 마련했다.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6년 지역축제평가용역 보고회'는 김상호 부군수와 고창축제추진위원회, 축제추진단체, 축제주관 간부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평가 대상축제는 청보리밭축제, 고창북부자외선박축제, 고창갯벌축제, 해풍고추축제, 고창모양성제 등 고창을 대표하는 5개 축제(제외 사)남도관광정책연구원에서 평가용역을 수행했다.

평가는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에게 설문지를 받아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축제의 만족도와 성과를 평가하고 문

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했다.

평가 결과 '청보리밭 축제'는 종합 안내소 등 방문객 응대시설 개선, '고창북부자외선박축제'는 축제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고창갯벌축제'는 축제장 내 음식부스 청결관리와 카드단말기 설치, '해풍고추축제'는 기념식 간소화 필요, '모양성제'는 체험과 기타 부스의 운영을 비롯, 입장 시간 관리·감독 필요 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보고회에 참석한 고창군축제추진위원회 송영래 위원장은 "보고회에서 지적된 각 축제별 개선사항에 대해 내년도 축제에 반영해 해결하면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축제 주관부서와 전문가들이 상의해 발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의회, 정례회 폐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결

순창군의회(김종섭 의장)는 2016년 12월 20일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도 예산안,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과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의결했다.

순창군의회는 2017년 내년도 순창군 예산을 일반회계 3,019억 2천만원과 특별회계 186억 3천만원 등 총 3,205

억원 규모의 예산을 의결했다.

확정된 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7억 원 가량 줄어든 수준으로 계수조정시각되었다. 특히 금년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봉주 위원장)는 군의회 최초로 계수조정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여 예산심사시 문제예산을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투명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동충동, 희망나눔 캠페인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희망 2017 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 동충동에 지역 기업과 단체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자원재활용협회 남원지회(회장 오순철)는 지난 19일 동충동을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 4명에게 성금 5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번 이웃돕기 성금은 연말 단체 송년행사를 풀고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 한국자원재활용협회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및 환경보전에 힘쓰고 있으며,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기업과 관내 임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웃돕기에 참여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박석만 동충동장은 "어려운 이웃과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문화의 정착과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초록우산재단, 순창군 후원금 전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본부장 구미희)는 지난 19일 순창군을 방문해 드림스타트아동에게 후원금 27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드림스타트 아동 29명에게 공부방, 난방비, 동화책, 의료비, 가방, 신발 등 270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원하게 된다.

구미희 초록우산 전북지역 본부장은 "취약계층(빈곤가정)아동의 책임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책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 하고자 이번에 후원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저탄소 생활실천 부문 표창

임실군이 금년도 행정수행 평가에서 각 부문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최우수기관 선정 등 표창 수상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군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라북도가 주최한 '저탄소 생활실천 부문' 성과 보고회에서 2016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번 평가는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 추진, 저탄소생활 실천 홍보캠페인 등을 기준으로 실시했으며, 군은 저탄소 생활 실천과 환경이해도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군 그린리더 협의회(회장 안종범)가 최우수상을 받아 상금 100만원을 받았으며, 우수 관리사무소에 송용비 이도주공아파트 소장이 선정돼 미래 기후 변화 대응 우수 사례로 손꼽혔다.

군 관계자는 "군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생활실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정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